

2016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담당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 (042-331-0092 / 010-3471-7468)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2016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

시행 : 2016년 11월 17일(목)

제목 :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

2016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 구분 | 행정자치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
|-----|---------|---------|--------------------|-------|
| 17일 | | |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 |

2.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주요 안건

1) 대전도시공사 사장실 내 폭행사건 및 기물파손

- 대전도시공사 사장실 내에서 간부의 노조위원장 폭행, 간부의 도청 녹취록, 민간인의 사장실 기물 파손 등에 따른 사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음에 대한 문제 지적.
+ 사장 본인의 불찰로 잘 해결 해겠다고 답변.
- 노동조합에서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압적인 자세보다 노동자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주문.

2) 대전도시공사 사장 가족에 대한 특혜문제 지적

- 올해 어린이날 관람객이 많아 시민은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는데 비해 사장가족은 공식 주차장이 아닌 별도 마련된 공간에 주차하게 한것은 특혜라고 지적

-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종보전센터에 가족과 함께 관람하고 카트를 이용해 이동 하는 등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갑질을 질타.
- + 가족의 카트 사용은 없었고, 다른 특혜는 대전시장과 보육원 아동의 방문에 앞서 사전답사를 했다고 답변.
- 도시공사직원은 카트사용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공사구분을 못하는 시장에 대한 질타

3)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 도안 갑천지구의 3블럭 총 사업비에 대해서 영업이사가 5,805억원이라고 답변했으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712억원으로 기입되어 있어,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질의.
- + 영업이사가 자료 작성 이후 일부 누락된 부분과 법인세를 포함하여 검토 후 정정했다고 답변.
- 또 다른 자료에도 사업비가 다르다며 보고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
-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예측 이익 148억원인데, 공익성을 더 중요시하는 공사로서 용적율을 줄여 이익을 줄이는 방안 검토는 어떠냐고 질의.
- + 148억원 이익은 이후 대전시민의 자산으로 시민에게 환원될 것으로 예상하며 용적율을 줄여서는 이 정도의 이익도 어렵다고 답변
-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사로서 이익이 줄어도 환경과 시민을 위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해 달라고 주문.

4)기타

- 안산첨단산업단지가 대전도시공사가 아닌 SPC로 변경된 부분 이유 질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주요 안건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내 역장 채용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내 역장 채용 시 대구, 광주처럼 60세가 아닌 63세 이상으로 복무규정으로 정한 이유를 질의.
- +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을 활용하기 위해 63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답변.
- 역장 중 공무원 출신이 70% 이상이고, 채용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공무원 출신이 아닌 시민도 역장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채용 규정의 변경할 것을 주문

2) 기타

- 대전시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주문.
- 대전시 감사에 지적된 직원 및 내용에 대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자체적인 인사 반영과 개선 요구

피감기관의 업무보다 피감기관장의 도덕성과 업무 태도에 대한 질타가 주요내용이었다. 피감 기관장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인사청문간담회 진행시 대전시의회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1월 말 행정사무감사 전체에 대한 평가와 우수위원 선정결과에 대해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